

문학 작품 속 기호의 번역 전략 분석: 에드거 앨런 포의 「The Gold-Bug」에 재현된 암호를 중심으로

이경희(동국대학교, 서울)

1. 서론

에드거 앨런 포의 단편 소설 「The Gold-Bug」(1843)는 암호 해독이라는 서사 장치를 통해 기호의 해석과 의미 생성 과정을 보여주는 암호 소설의 효시로 불린다. 포는 암호, 언어유희, 수수께끼 등에 관심이 많았으며, <알렉산더스 위클리 메신저(Alexander's Weekly Messenger)> 신문사와 <그레이엄스 매거진(Graham's Magazine)>에서 편집자로 일하면서 퍼즐을 접할 기회가 많았고, 암호에 대한 그의 관심은 작품에도 연결되어 이야기 속에서 일상적인 사물과 그 의미 사이의 관계는 인물들이 퍼즐을 풀고 새로운 퍼즐을 찾는 데 중요한 도구로 작용한다(Carlson, 2025). 소설 「The Gold-Bug」에서 주인공이 암호를 해독하는 과정을 서술하면서 포는 퍼스가 가추법(abduction)이라고 하는 추론(ratiocination)을 주요 문체적 장치로 사용하였으며, 암호를 해독하여 보물이 숨겨져 있는 위치를 찾는 과정은 탐정이 단서를 토대로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과 유사하다(Harrowitz, 1983, p. 186). 이 과정에서 암호라는 기호학적 요소는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흥미를 유발하는 주요 장치이며 서사의 핵심이 된다. 이러한 암호라는 기호의 서사적 특성이

번역에서 어떤 전략으로 재현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본 연구는 출발한다.

암호를 해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암호를 구성하는 방식, 즉 기호가 의미를 재현하는 방식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다른 무엇을 대신하거나 의미하는 것”(Chandler, 2017, p. 2)이라는 기호의 전통적인 개념을 기반으로, 찰스 샌더스 퍼스(Charles Sanders Peirce)의 기호 개념과 유형론을 이론적 틀로 사용하여 원천 텍스트에서 암호 구성과 해독 과정의 핵심 단서로 사용된 기호의 번역 전략을 4종의 한국어 번역서를 대상으로 분석한다.

기호의 번역 전략 분석을 위해 먼저 원천 텍스트에서 주인공이 암호를 해독하는 과정을 8단계로 단계화하고 각 단계의 핵심 기호를 추출하였다. 추출한 기호는 퍼스의 기호 유형론에 따라 도상(icon), 지표(index), 상징(symbol) 범주로 구분하고, 각 기호와 의미와의 관계, 즉 인물의 추론을 통해 해석되어 생성된 의미를 분석하였다(Peirce, 1931-1958, CP 2.247, 2.248, 2.249¹⁾). 퍼스가 제시한 기호의 삼원적(triadic) 모형의 세 요소, 기호(sign), 대상(object), 해석체(interpretant)는 표상적 특성(presentative character), 재현적 특성(representative character), 해석적 특성(interpretative character)을 기반으로 상호 관계를 맺으며, 재현적 특성에 따라 도상, 지표, 상징 기호로 구분할 수 있는데, 도상은 기호(표상체)와 대상 간의 유사성을 기반으로 하는 기호, 지표는 인과 관계나 물리적 연결 관계를 기반으로 한 기호, 상징은 규칙이나 관습을 기반으로 의미를 해석하는 기호이다(Liszka, 1996, pp. 38-39).

기본적으로 원천 텍스트와 목표 텍스트를 구성하는 언어 기호는 각 언어의 규칙을 기반으로 의미를 해석하는 상징 기호에 속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암호 해독 과정에 단서가 되는 기호에 한정하여 이 기호들이 이야기 속 맥락에서 생성하는 의미를 파악하고 기호의 유형을 구분하여 번역 양상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암호 해독 단계별 기호의 번역 여부, 기호의 재현 의미와 재현 방식의 변화, 기호 유형별 번역 전략의 특성, 번역 전략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연구자들이 수집하고 정리한 결과물인 퍼스의 논문집은 관용적으로 CP(Collected Papers)와 권(volume), 절(paragraph) 번호로 참고 문헌 정보를 표기하며, 본 연구에서도 이에 따라 표기하였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2.1 피스의 기호 모형

기호와 의미에 대한 대표적인 이론가인 페르디낭 드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는 현대 기호학(semiotics)에 영향을 미친 스위스의 근대 구조주의 언어학자로 1890년대 초부터 기호 모형(sign model)과 기호학(semiology)을 정립하기 시작하였고, 찰스 샌더스 피스(Charles Sanders Peirce)는 1860년대 말 ‘semeiotic’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기호 이론을 정립하기 시작했다. 소쉬르는 언어학자로서 언어 기호의 사회적 기능에 초점을 맞추었고, 피스는 논리학자로서 기호 일반의 논리적 기능에 초점을 맞추었다(Chandler,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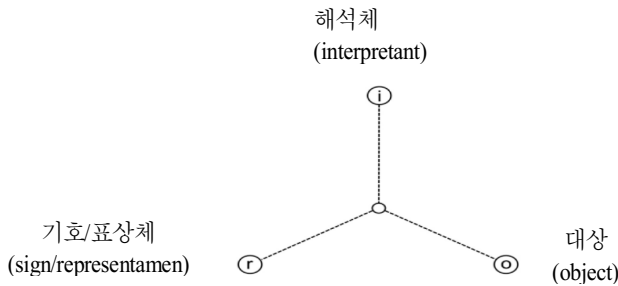
소쉬르는 언어를 기호 체계(sign system)로 설명하는데, 언어 기호(linguistic sign)는 “사물(thing)과 이름(name)의 관계가 아닌 개념과(concept) 음성 이미지(sound-image)의 관계”이며, 음성 이미지는 감각을 통해 청자에게 전달되는 소리에 대한 “심리적 인상(psychological imprint)”이다(Saussure, 2011, p. 66). 언어 기호는 기표(signifier/sound-image)와 기의(signified/concept)라는 두 가지 측면의 심리적 실체(psychological entity)로 구성되며, 두 요소는 자의적으로(arbitrary), 특별한 이유나 동기 없이(unmotivated) 결합하는 특성이 있고(Saussure, 2011, p. 69), 종이의 양면처럼 분리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Saussure, 2011, p. 113).

기표와 기의로 구성되는 소쉬르의 이원적 모형과 달리 피스가 설명하는 기본 구조는 기호(sign), 대상(object), 해석체(interpretant)라는 세 요소로 구성되는 삼원적 모형이다(그림 1). 기호는 표상체(representamen)라고도 하며 기호가 취하는 형태(form), 즉 어떤 대상을 나타내는 기호 매개체(sign-vehicle)이고, 대상은 기호가 지시하는 것(referent)이나 재현하는 것(represent)이며, 해석체는 기호가 생성하는 효과, 기호가 만들어 내는 의미로 기호와 대상의 관계를 해석한 의미이다(Chandler, 2017, p. 29). 인간은 의미를 만들어 내는 존재인 “호모 시그니피칸스(Homo significans)”로 어떤 것(things)을 해석함으로써 그 어떤 것을 기호(sign)로 사용하는데(Chandler, 2017, p. 11), 피스에 따르면 기호가 기호로 간주되려면 대상과 연관성이 있거나 무엇인가를 재

현해야 하고, 잠재적으로나 실제로 해석체를 한정해야 하며, 기호, 대상, 해석체는 서로의 관계를 통해 의미를 획득하는 분리할 수 없는 삼원적(triadic) 관계에 있어야 한다(Liszka, 1996, pp. 18-19). 즉, 기호, 대상, 해석체는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상호 관계를 형성할 때 기호로 작용하게 된다.

그림 1

퍼스가 제시한 기호의 삼원적 모형(Chandler, 2017, p. 31)



퍼스의 기호 모형에서 기호는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을 넘어 해석 과정에서 의미를 생성하고 변화되는 역동적 특성을 지니며, 원천 텍스트의 기호가 생성하는 의미를 해석하여 목표 텍스트의 기호로 그 의미를 재현하는 번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호의 의미 생성 구조와 의미의 변화를 분석하는 이론적 기반이 될 수 있다.

2.2 퍼스의 기호 유형론

위에서 검토한 퍼스의 삼원적 모형을 구성하는 기호(표상체), 대상, 해석체는 표상적 특성(presentative character), 재현적 특성(representative character), 해석적 특성(interpretative character)을 기반으로 상호 관계를 맺으며, 각 특성을 기반으로 기호의 유형을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호와 대상 간에 관계를 맺는 방식인 재현적 특성을 기반으로 분류한 기호 유형을 분석틀로 사용하며, 기호와 대상이 상호 관계를 맺는 세 가지 기본 방식과 기호 유형을 <표 1>에 정리하였다.

첫째, 주로 유사성(likeness)(CP 1.558)을 기반으로 대상과 상호 관계를 맺

을 때 그 기호를 도상(icon)이라고 하며 기호의 속성이 대상의 특성과 유사한 관계에 있다. 도상의 하위 범주로는 이미지(image), 다이어그램(diagram) 등이 포함된다.

표 1

기호의 재현적 특성으로 분류한 퍼스의 기호 유형

기호 유형	기호와 대상과의 관계성
도상 (icon)	유사성, 닮음을 기반으로 대상과 상호 관계를 맺는 경우
지표 (index)	인접성을 기반으로 대상과 상호 관계를 맺는 경우
상징 (symbol)	관습, 규칙을 기반으로 대상과 상호 관계를 맺는 경우

실제 나무의 그림이나 초상화처럼 원래 대상이 갖고 있는 많은 특징을 기호가 담고 있는 경우를 이미지라고 하며, 지형의 각 요소를 재현한 지도처럼 대상체를 간략화하고 양식화하여 기호와 대상 간에 감각적인 유사성 (sensuous resemblance)은 없지만 각 부분들의 관계에 유사성이 있는 경우를 다이어그램이라 한다(CP 2.277, 2.279). 아래 예시는 괄호를 사용해 도상 (Icons), 지표(Indices), 상징(Symbols)이 기호(Signs)의 유형에 포함된다는 서로의 관계를 보여주는 다이어그램으로 도상 기호에 속한다(CP 2.282).

{Icons,
Signs: {Indices,
 {Symbols.

위와 같이 다이어그램은 겉모습에서는 대상과 전혀 닮지 않고 부분들의 관계에서만 유사성이 존재하기도 한다.

둘째, 주로 인접성(contiguity)을 기반으로 대상과 상호 관계를 맺을 때 그 기호를 지표(index)라고 하며, 기호의 유일성(singularity), 시·공간적 위치를 기반으로 대상과의 관계를 형성한다. 예를 들어 직시(deictic) 또는 지시적(referential)(CP 2.283) 관계, 인과적(causal) 또는 실존적(existential)(CP

2.283) 관계, 표지화(labeling)(CP 2.285, 3.361) 관계 등이 있다. 직시 또는 지시적인 관계에서 기호와 그 대상 간에는 직접적인 연속성이 인식되며, 손가락으로 대상을 가리켜 생성되는 상상의 선을 잇는 것, 지시 대명사를 통해 지시된 대상을 가리키는 것 등이 그 예이다. 인과적 또는 실존적인 관계는 바람과 풍향계에서 형성될 수 있는데, 풍향계가 특정 방향을 가리키는 것은 바람이 풍향계에 가한 힘의 결과이며 풍향계는 바람의 방향을 알려주는 지표가 된다(CP 2.286). 문을 두드리는 소리도 지표이며 우리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모든 것, 우리를 놀라게 하는 모든 것은 지표이다(CP 2.285).

셋째, 기호가 관습적(conventional), 습관적(habitual), 본래적(natural), 경향적(dispositional), 규칙적(lawlike) 관계를 통해서 대상과 상호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를 상징(symbol)이라고 한다(Liszka, 1996, p. 39). 대표적인 상징 기호는 언어이며 관습이나 습득된 법칙에 따라서 특정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CP 2.292). 상징은 특정 의미로 해석되거나 사용되기 때문에 기호가 되며, 즉 해석체가 없으면 기호로 작용할 수 있는 특성을 잃게 된다.

이처럼 재현적 특성을 기준으로 분류한 도상, 지표, 상징 기호는 각 기호가 대상과 상호 관계를 맺는 방식, 즉 기호가 의미를 생성하는 방식과 해석하는 기준에 차이가 있으므로, 번역 과정에서 사용한 여러 번역 전략을 기호 유형의 특성에 따른 의미 재현 방식과 해석 방식의 재구성으로 설명할 수 있게 해 준다.

2.3 기호학과 번역 연구

기호학을 기반으로 한 번역 연구는 고전적인 기호학, 사회기호학 및 문화기호학적 관점에서 의미의 재현과 해석에 초점을 둔 연구(김진아와 김지은, 2018; 마승혜와 김순영, 2022; 이승재, 2015; 이윤희, 2020; 이창수, 2008; 이향근, 2017; Lee, 2006 등)와, 야콥슨(Jakobson, 1959)의 기호 간 번역(intersemiotic translation) 관점에서 기호 체계 간 변환에 초점을 맞춘 연구(김명균, 2009; 이상빈, 2020 등)가 수행되었다. 이 중 본고의 연구 주제와 관련이 있는 기호의 의미 재현 방식과 해석에 중점을 둔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먼저, 본고의 분석 대상인 문학 작품에서 기호의 의미 재현 방식 및 해

석과 관련된 연구는 제한적이었으며, 대표적인 연구로 Lee(2006)는 뉴베리상을 수상한 문학 작품 번역에서 서구 문화와 언어의 이질성을 기호학적 접근으로 분석하였고, 크리스테바(Kristeva, 1986)가 소개한 개념인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과 바르트(Barthes, 2002)가 설명한 의미 단계인 내포, 외연, 신화 등을 하위 분석 도구로 사용하여 목표 문화권 독자의 이해를 위한 번역가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승재(2015)에서는 퍼스의 삼원적 기호 모형을 이용해 번역 과정을 “대상에 대한 해석체의 중재를 통해 표현체로 탈기호화하는 과정”으로 보고 문화 이론을 도입하여 『엄마를 부탁해』에서 발췌한 문화소의 번역 양상을 제시하면서, 문화소 개념의 확장과 번역 분석에 초점을 맞춰 기호학적 접근의 가능성을 제시했다(p. 85).

다음으로, 문학 작품의 파라텍스트(paratext) 요소를 기호학을 기반으로 분석한 연구로 이향근(2017)에서는 한국 아동 문학의 원서와 번역서 표지의 시각적 요소와 언어적 요소를 분류하고 그로부터 파생되는 의미를 바르트가 제시한 의미 단계 모형을 토대로 분석하였고, 마승혜와 김순영(2022)에서는 20개국에서 번역 출판된 한국 문학 작품의 표지에 재현된 이미지를 작품 속 주인공이 겪는 사회적 상황과 연계하여 사회기호학적인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 외에 웹사이트, 음식명, 영화를 분석 대상으로 한 기호학적 관점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먼저, 이창수(2008)에서는 국내 대기업 홈페이지의 영역 판 사이트를 대상으로 CEO의 사진 배치, 크기, 사진 속 포즈 등의 비문자적 기호와 CEO 메시지를 구성하는 문자적 기호가 재현하는 의미를 사회기호학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는데, 기호가 해석되는 방식을 규정하는 사회적 코드에 반영된 문화적 가치나 이념을 분석하여 번역 과정에서 이 문화적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목표 문화권에서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김진아와 김지은(2018)에서는 독자 수용도가 낮은 한식명의 중국어 번역을 문화기호학적 관점에서 분석하였고, 국가 브랜드 제고와 홍보를 위한 의사소통에서 번역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전제로, 번역 과정에서 문화와 역사적 의미를 반영하지 못해 문화기호의 접점이 적을수록 수용도가 낮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사회기호학, 문화기호학적 관점의 연구에서는 특정 집단의 문화와 상황에 따라 기호가 해석되는 특징을 보여주며, 번

역 과정에서 특정 문화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규칙인 “코드(code)”를 이해하고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준다(Chandler, 2017, pp. 177~178).

영상 매체를 기호학적 관점에서 분석한 이윤희(2020)에서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억과 경험이 영화 <생일>에서 내러티브로 구성되는 방식을 퍼스의 기호학을 토대로 분석하였고, 증언과 내레이션 개념을 도상적 기억, 지표적 증언, 해석의 내레이션 과정에서 검토하고, 감독이 카메라 눈을 통해 대상을 기술하는 과정을 다이어그램 개념을 적용하여 설명하였다.

우리의 경험은 영화, 그림, 행위, 건축물, 문학 작품 등 다양한 기호의 형태로 재현된다. 다양한 기호가 재현하는 의미를 이해하는 방법으로 본고에서 제시하는 기호 유형론은 기호와 대상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의미가 생성되는 방식을 이해하여 번역 전략을 선택하고, 또 그 선택을 설명하는 데 유용한 틀이 될 것이다.

3. 분석 대상 및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에드거 앨런 포의 소설 『The Gold-Bug』의 핵심 서상 장치인 암호의 번역 전략을 기호 유형론을 기반으로 분석하며, 분석 대상 목표 텍스트는 단편 단행본으로 출판된 번역서 4종이다. 분석을 위해 원천 텍스트에서 주인공이 암호를 해독하는 과정을 8단계로 단계화하고, 각 단계의 핵심 기호를 추출한다. 추출한 기호는 퍼스의 기호 유형론에 따라 도상, 지표, 상징 범주로 구분하고, 각 기호가 재현하는 의미를 파악한다. 그 결과를 목표 텍스트에서 확인하여 각 기호의 번역 양상을 정성적으로 비교 분석한다.

3.1 분석 텍스트

에드거 앨런 포의 『The Gold-Bug』(1843)는 해적, 보물, 암호라는 소재를 추리 소설 기법으로 엮은 대표적인 암호 소설이다. 달러 신문(Dollar Newspaper)의 공모전에서 1위를 차지하며 대중으로부터 인기를 얻었는데, 당시 문학 시장에서 대중에게 인기 있던 부(富)라는 주제를 암호 해독이라는 장치와 연결한 작품이다. 평소 암호로 이루어진 편지를 주고받는 등 암

호 해독에 관심이 많았던 포는 이 작품에서 숨겨져 있는 보물을 발견하는 수단으로 암호 해독이라는 장치를 사용했다(Whalen, 1994).

분석에 사용한 원천 텍스트는 1975년 빈티지 북스(Vintage Books)의 포 작품집에 수록된 『The Gold-Bug』이고, 목표 텍스트는 2025년 7월 11일 기준 국립중앙도서관 웹사이트에서 검색한 결과 『The Gold-Bug』를 단독으로 번역 출판한 도서 4종이며, 번역서의 세부 정보를 <표 2>에 정리하였다.

표 2
분석 목표 텍스트 목록

연번	출판	표제	출판사	번역	형태	총서 사항
TT1	1986	황금벌레	계림문고	편집부 옮김	85p. 19cm	세계추리 걸작선집18
TT2	1994	황금풍뎡이	웅진출판	세계명작선 편집위원실 옮김	155p. 29cm	문제풀이 세계명작36
TT3	2008	황금벌레	한국글렌도만	김주현 글 윤보영 그림	27p. 24cm	논리술술 세계단편문학42
TT4	2014	황금곤충	푸른책들 (보물창고)	황윤영 옮김	101p. 21cm	익사이팅 보물창고1

단편 단행본으로 출판된 네 번역서 중 1986년 『황금벌레』는 세계추리 걸작선집에 포함된 문고판이며, 1994년 『황금풍뎡이』는 번역본을 읽고 작품 관련 문제를 풀어보고 논술시험에 대비하는 목적으로 번역된 세계명작 총서에 속한다. 2008년 『황금벌레』는 논술 대비 어린이 단편 문학 총서 중 하나로 축약 번역되었고 컬러 삽화를 사용하여 그림책의 형식에 가깝다. 2014년 『황금곤충』은 어린이들을 위해 선정한 미스터리와 판타지 문학 시리즈로 흥미와 문학성을 전달하려는 목적으로 번역되었다.

2) 공모전에서 2위는 『The Banker's Daughter』, 3위는 『Marrying for Money』로 당시 문학 시장에서 대중에게 인기 있던 주제를 보여준다.

3.2 암호 해독 단계와 핵심 기호 분석

작품의 주요 인물은 한때 부유한 귀족이었지만 재정적인 문제로 설리번 섬으로 도피한 은둔자 윌리엄 르그랑(William Legrand), 르그랑이 몰락하기 전 집에서 일하던 하인이었지만 현재는 자유의 몸이 된 주피터(Jupiter), 르그랑의 친구인 1인칭 서술자이며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설리번 섬에서 르그랑은 사냥, 낚시, 조개껍데기나 곤충 표본 모으는 일을 즐기며 살고 있었다. 어느 날 해변에서 풍뎅이처럼 생긴 황금빛 벌레를 발견하게 되고, 주변에 있던 낡은 종이를 싸서 집에 오던 중 G중위에게 벌레를 빌려준다. 이 날 르그랑의 집을 방문한 서술자에게 벌레에 대해 설명하던 중 벌레를 찌던 종이에 그 모양을 그려서 보여주고, 그림을 본 서술자가 벌레가 아니라 해골의 모습이라고 말하자 르그랑은 다시 그림을 확인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종이의 비밀을 발견하게 된다. 이 낡은 종이는 양피지였고 불에 가까이하면 나타나는 화학 물질로 쓴 암호가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르그랑은 이 암호가 해적 선장 키드(Kidd)가 남긴 것이며 보물을 숨긴 장소를 찾는 방법을 의미한다는 것을 추론하고, 암호를 해독하여 보물을 발견하게 된다.

위 이야기의 핵심 서사 장치인 암호 해독 과정을 단계화하고 각 단계에서 핵심이 되는 기호의 유형과 그 의미를 <표 3>에 정리하였다. 퍼스의 유형론에 따른 분류는 동일한 기호가 도상 기호로 작용하면서 지표 기호로도 작용하는 등 유동적인 체계이며, 기호의 해석은 맥락과 상황에 따라 다양해질 수 있다.

1단계: 황금빛 벌레를 발견한다.

르그랑이 해변에서 발견한 황금빛 벌레의 생김새를 설명하기 위해 양피지에 그린 황금빛 벌레의 그림은 르그랑이 묘사하는 벌레의 형상과 유사성(닮음)의 관계에 있으므로 도상 기호이다. 또한, 이 황금빛 벌레의 존재가 보물의 존재를 가리키며 실제 발견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지표 기호로도 작용한다.

2단계: 양피지에서 해골 그림을 발견한다.

르그랑이 그린 벌레 그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양피지에 열이 가해지고 숨겨져 있던 해골 그림이 드러나는데, 이는 실제 해골 모양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도상 기호이다. 또한, 문화적으로 학습된 결과인 해적을 의미하는 상징 기호로도 작용하며, 르그랑은 바다, 섬, 난파선의 파편, 황금 벌레, 양피지 등 다른 징후들을 연결하여 해골이 해적과 관련됨을 추론한다.

표 3

암호 해독 단계에서 단서가 되는 기호 분석

단계	기호	기호 유형	재현 의미
1	황금빛 벌레	도상 기호	해변에서 발견한 벌레의 형상
		지표 기호	해적이 숨긴 보물의 존재로 연결
2	해골	도상 기호	해골(죽은 사람의 머리뼈)
		상징 기호	해적
3	새끼 염소	도상 기호	새끼 염소의 형상
		상징 기호	해적 선장 키드
4	문자 조합 암호문	상징 기호	선장 키드의 메시지(보물의 위치)
5	문자 빈도표	도상 기호	문자와 사용 빈도 간의 관계
6	문자 치환표	도상 기호	문자와 알파벳의 치환 관계
7	치환 암호문	상징 기호	보물의 위치
8	분석 암호문	상징 기호	실제 장소에서의 실행 순서

3단계: 양피지에서 새끼 염소 그림을 발견한다.

해골 그림의 대각선 방향에서 발견한 새끼 염소 그림은 실제 새끼 염소와 닮은 유사성의 관계에 있으므로 1차적으로는 도상 기호이다. 2차적으로는 규칙성을 기반으로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상징 기호로도 작용하는데, 르그랑은 새끼 염소 그림을 보고 새끼 염소의 영어 단어인 ‘kid’가 유명한 해적 선장 이름인 ‘Kidd’와 발음이 같아 언어유희가 생성된다는 것을 추론하여, 새끼 염소 그림이 해적 선장의 서명이라는 해석에 이른다.

You may have heard of one Captain Kidd. I at once looked upon the figure of the animal as a kind of punning or hieroglyphical signature.

4단계: 양피지에서 문자가 조합된 암호문을 발견한다.

53‡‡‡305))6*;4826)4‡.)4‡);806*;48‡8¶(60))85;1‡(:;‡*8‡83(88)
 5*‡;46(;88*96*?:8)*‡(;485);5*‡2 :*‡(;4956*2(5*—4)8¶8*;40692
 85);6‡8)4‡‡;1(‡9;48081;8:8‡1;48‡85;4)485‡528806*81(‡9;48;(8
 8;4(‡?34;48)4‡;161::188;‡?;

양피지 가운데에 열을 가해 해골과 새끼 염소 그림 사이에서 발견한 여러 문자가 조합된 암호문은 지시 대상과의 유사성이나 물리적인 인접성이 없고, 규칙성을 기반으로 의미를 획득하는 상징 기호이다.

5단계: 문자의 사용 빈도표를 만든다.

새끼 염소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와 선장 이름의 언어유희를 토대로 암호문이 영어로 된 메시지라고 추론한 르그랑은 각 문자의 사용 횟수를 정리한 표를 만드는데 이는 문자와 빈도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다이어그램으로 도상 기호에 속한다.

Of the character 8 there are 33.

;	"	26.
4	"	19.
‡	"	16.
*	"	13.
5	"	12.
6	"	11.
‡1	"	8.
0	"	6.
92	"	5.
:3	"	4.

- ? " 3.
- ¶ " 2.
- " 1.

6단계: 문자와 알파벳의 치환 규칙표를 만든다.

암호문에 사용된 문자의 빈도를 영어 단어에서 많이 사용되는 알파벳 순위와 연결하여 각 문자가 가리키는 알파벳을 유추하고 그 관계를 정리한 표를 만드는데, 이 표는 문자와 알파벳과의 치환 관계를 보여주는 다이어그램으로 도상 기호에 속한다.

5	represents	a
†	"	d
8	"	e
3	"	g
4	"	h
6	"	i
*	"	n
‡	"	o
("	r
;	"	t
?	"	u

7단계: 치환 규칙에 따라 영어 암호문을 완성한다.

'A good glass in the bishop's hostel in the devil's seat forty-one degrees and thirteen minutes northeast and by north main branch seventh limb east side shoot from the left eye of the death's-head a bee-line from the tree through the shot fifty feet out.'

일련의 문자 조합을 알파벳으로 치환한 영어 암호문은 합의된 규칙을 기반으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상징 기호이며, 이 단계의 암호문에는 구

두점이 없어 완전한 의미를 이해하기는 어렵다.

8단계: 의미 단위를 분석한 암호문을 완성한다.

'A good glass in the bishop's hostel in the devil's seat—forty-one degrees and thirteen minutes—northeast and by north—main branch seventh limb east side—shoot from the left eye of the death's-head—a bee-line from the tree through the shot fifty feet out.'

주인공은 문장을 분석하여 각 의미 단위가 보물의 위치를 찾기 위해 실제 장소에서 수행해야 할 행동 순서를 나타낸다는 규칙을 추론하는데, 분석한 영어 암호문도 합의된 규칙을 기반으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상징 기호이다.

이상에서 분석한 단계별 기호의 번역 전략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 장에서는 목표 텍스트에서 암호 해독 단계별 기호의 재현 여부를 확인하고, 기호의 의미가 재현된 방식을 분석하여 번역서별, 기호 유형별 번역 전략의 특성을 기술하고, 번역 전략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논의한다.

4. 암호 해독 단계별 기호의 번역 전략 분석

4.1 암호 해독 단계와 번역

암호 해독 과정에서 해석의 단서가 되는 기호의 번역 양상을 분석한 결과 기호가 재현된 경우, 형식이나 의미가 변형된 경우, 생략된 경우로 구분할 수 있었고, 그 결과를 <표 4>에 정리하였다.

암호 해독의 1단계와 2단계의 핵심 기호인 황금 벌레, 해골 그림은 모든 번역서에서 도상 기호의 의미가 재현되었고, 3단계 새끼 염소의 도상 기호 의미는 TT3을 제외한 모든 번역서에서, 상징 기호의 의미는 TT4에서만 재현되었다. 1단계부터 3단계까지의 기호는 대체로 재현되어 ‘해적과 보물’이

라는 주제와 추론적 연계성이 유지되었는데, 황금빛 벌레, 해골 그림, 새끼 염소 그림은 목표 문화에서도 기호와 대상과의 유사성을 기반으로 의미를 해석하기 어렵지 않으므로 도상 기호의 의미가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다.

표 4

암호 해독의 단서가 되는 기호의 재현 양상(유지:○, 변형:◐, 생략:●)

단계	기호	유형	TT1	TT2	TT3	TT4
1	황금빛 벌레	도상	○	○	○	○
		지표	○	○	○	○
2	해골	도상	○	○	○	○
		상징	○	○	○	○
3	새끼 염소	도상	○	○	●	○
		상징	●	●	●	○
4	문자 조합 암호	상징	●	◐	●	◐
5	문자 빈도표	도상	●	◐	●	◐
6	문자 치환표	도상	●	◐	●	◐
7	치환 암호문	상징	●	◐	●	◐
8	분석 암호문	상징	◐	○	●	○

4단계의 문자 조합으로 이루어진 암호문은 TT1과 TT3을 제외한 2종에서 재현되었고, 일부 문자가 다른 문자로 대체되거나 생략되고, 조합 순서가 변경되는 등 구성에는 차이가 있으나 여전히 암호문이라는 상징 기호로 작용하였다. 5단계의 암호문을 구성하는 문자의 사용 횟수를 나타낸 표와 6단계의 문자와 알파벳과의 치환 관계를 나타낸 표는 도상 기호의 다이어그램에 속하며, TT1과 TT3을 제외한 2종에서 재현 방식에 차이가 있으나 도상 기호의 의미는 재현되었다.

7단계의 알파벳으로 치환한 암호문 또한 TT1과 TT3을 제외한 2종에서 재현되었고, 치환된 영어 문장과 한국어 번역문을 함께 제시했다. 8단계의 최종 분석 암호문은 TT3을 제외한 3종에서 재현되어 암호를 해독하여 보물을 찾는 문제 해결의 가능성과 추론의 방향성을 유지하였다. 아래에서 단계별 기호의 세부 번역 전략을 검토한다.

4.1.1 황금빛 벌레: 도상, 지표

작품의 제목이기도 한 르그랑이 발견한 황금빛을 먹는 벌레는 보물찾기를 향한 르그랑의 집착을 촉발하여 실제 발견으로 이어지게 하는 열쇠(Wang et al., 2018, p. 538)로 작용하는 지표이자, 주인공이 묘사하는 벌레의 형상과 유사성의 관계에 있는 도상 기호이다. 원천 텍스트의 제목에서는 벌레의 형상을 기반으로 한 ‘gold-bug’가 사용되었고, 이야기 속에서는 상황에 따라 bug(29회), insect(7회), scarabaeus(19회), beetle(22회), goole³⁾ bug(8회)가 사용되어 성질을 나타내는 ‘gold’와 결합된 지시어 사용이 비교적 적다.

목표 텍스트에서도 제목 번역은 황금빛이라는 성질을 기반으로 한 ‘황금’과 결합한 ‘황금 벌레’(TT1, TT3), ‘황금 곤충’(TT4), ‘황금 풍뎅이’(TT2)로 번역되었다. ‘황금’은 ‘금’이 뜻하는 ‘황색의 광택이 있는 금속 원소’라는 의미뿐 아니라 ‘돈이나 재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도 사용되므로 도상 기호로서의 특성은 물론 황금빛 벌레 발견에서 보물 발견으로 이어지는 지표 기호로서의 특성도 반영할 수 있다. 본문에서는 벌레, 곤충, 풍뎅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었고, TT1에서는 이 외에도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는 ‘갑충’을 사용하면서 괄호 안에 ‘걸날개가 딱딱한 곤충의 총칭’이라는 추가 정보를 제시하여 이해를 도왔으며, TT3에서는 목표 문화권에서 가장 크고 힘센 ‘장수풍뎅이’를 사용하여 벌레의 존재감과 특별함을 강조하였다. ‘황금’ 또는 ‘금’과 결합된 지시어로는 <표 5>에 정리한 바와 같이 금풍뎅이, 황금 벌레, 황금 풍뎅이가 사용되었다.

표 5

본문 내 ‘황금’ 또는 ‘금’과 결합된 지시어 사용 빈도

	기호	빈도(회)
ST	goole-bug	8
TT1	금풍뎅이(11), 황금 벌레(6)	17
TT2	황금 풍뎅이	5
TT3	황금 벌레	13
TT4	황금 벌레	8

3) 주피터가 ‘gold’를 발음할 때의 특성을 철자 변형으로 나타냈다.

원천 텍스트보다 ‘황금’과 결합된 지시어 사용이 많아 기호의 특성이 강화된 번역서는 TT1과 TT3이었다. TT1에서는 금풍뎅이와 황금 벌레라는 기호를 사용하고, TT3에서는 이야기 전체에 걸쳐 황금 벌레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주인공이 보물을 발견한 것은 황금 벌레가 가져다준 행운이라는 지표 기호로써의 의미를 강화했다.

4.1.2 해골 그림: 도상, 상징

해골 그림은 물리적으로 실제 해골 모양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도상 기호가 될 수 있고, 죽음, 위험, 공포, 해적 등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나타내는 상징 기호가 될 수도 있다. 주인공은 양피지에 그려진 해골 그림을 바다, 난파선의 파편, 양피지의 용도, 보물에 대해 전해지는 이야기 등 주변 환경과 배경지식을 포함하는 여러 징후와 연결하여 해적을 나타내는 상징 기호로 이해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문화적으로 학습된 결과인 해적이라는 해석체를 생성한 것이다. 해골 모양과 유사성의 관계에 있는 도상 기호의 특성은 목표 문화권에서도 죽은 사람의 뼈라는 공통된 지식을 갖고 있으므로 재현과 이해가 쉬우며, 해적을 나타내는 상징 기호의 특성 또한 문학, 영화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문화적으로 학습된 규칙을 기반으로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모든 번역에서 추가 정보 없이 모두 ‘해골’, ‘해적’이라는 기호를 사용하여 해골 그림이 해적을 나타낸다는 의미를 재현하였다.

TT1	해골이 그려진 그림은 <u>해적의 표시</u> 입니다. 해골이 그려진 깃발은 해적질을 할 때 해적들이 자기네 배에 다는 것입니다.
TT2	해골은 해적들의 유명한 <u>상징</u> 이 아닌가. 그들은 무슨 일을 하든 언제나 해골의 그림이 그려진 깃발을 들고 다니니까 말일세.
TT3	내가 본 해골 그림은 레그랜드가 그린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추운 날 불을 쬐자 그림 뒷면에 숨어 있던 <u>해적 표시</u> 가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TT4	해골은 널리 알려진 <u>해적의 상징</u> 이라고. 해골 깃발은 해적들이 해적질을 할 때마다 올리는 것이지.

4.1.3 새끼 염소 그림: 도상, 상징

새끼 염소 그림의 도상 기호는 목표 문화권에서도 기호와 대상과의 유사성을 기반으로 의미를 해석하기 어렵지 않으므로, TT1은 서술자의 서술로, TT2와 TT4는 인물의 발화를 통해 추가 정보 없이 재현되었다. TT3에서는 암호 해독 단계를 단순화하는 전략에 따라 생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TT1	해골 그림의 맞은편에 염소 같은 것이 나타났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았더니 그것은 아무래도 새끼염소 같았습니다.
TT2	처음에 나는 그것이 염소인 줄 알았지. 그렇지만 좀더 주의 깊게 살펴보니, 그건 염소가 아니라 새끼염소였네.
TT4	난 처음에는 그게 염소인 줄 알았네. 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니 그건 새끼 염소를 그려 놓은 것 같았어.

새끼 염소의 영어 단어와 해적 선장 이름의 발음이 유사하다는 사실에서 언어유희를 추론해 내는 과정은 TT4에서만 각주를 통해 재현되었다.

TT4	<p>자네도 키드 선장*에 대해 들어봤을 걸세. 나는 대번에 그 동물의 형상을 제기 가득한 상형문자로 된 서명이라고 생각했네.</p> <p>*키드 선장(1664-1701): 17세기 말의 유명한 영국의 해적 선장. 인도양의 해적을 진압하기 위해 출항했다가 자신도 해적이 되어 카리브 해를 무대로 활약했다. 새끼 염소 그림이 키드 선장의 서명이라고 생각한 것은 키드(Kidd) 선장의 이름이 새끼 염소(kid)와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이다.</p>
-----	--

TT4는 어린이에게 문학과 흥미를 전달하려는 목적으로 언어유희라는 상징 기호의 특징을 이해하기 쉽게 정보를 추가로 제시하는 전략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박옥수, 2015; 신지선, 2009; 이인규, 2012; Lee, 2006). 2단계의 해골이 해적을 의미한다는 규칙성은 문화적으로 학습된 규칙을 기반으로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호인 반면, 새끼 염소의 영어 단어와 해적 선장 키드의 이름에서 생성되는 언어유희라는 규칙성은 목표 문화권 독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TT2		TT4
8 ----- 33번	+ ----- 8번	8은 34번
; ----- 26번	1 ----- 8번	;는 27번
4 ----- 19번	0 ----- 6번	4는 19번
‡ ----- 16번	9 ----- 5번)는 16번
) ----- 16번	2 ----- 5번	‡는 15번
* ----- 13번	: ----- 4번	*는 14번
5 ----- 12번	3 ----- 4번	5는 12번
6 ----- 11번	? ----- 3번	6은 11번
		†는 8번
		1은 7번
		0은 6번
		9와 2는 5번
		: 3은 4번
		?는 3번
		◀는 2번
		—는 1번

암호 문자와 빈도의 관계를 보여주는 다이어그램의 형식은 두 번역서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TT2는 2열로 나누어 문자별 사용 횟수를 행으로 구분하고 문자와 빈도의 관계를 이음줄을 사용하여 재현했으며, TT4는 원천 텍스트와 동일한 형식으로 문자별 사용 횟수를 행으로 구분하였다. 두 번역 모두 원천 텍스트에서 사용한 중복 기호를 사용하지 않고 거듭되는 일의 횟수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 ‘번’을 반복적으로 사용해 빈도를 재현했다.

4.1.6 암호문에 사용된 문자와 알파벳의 치환표: 도상

암호 문자와 알파벳의 치환 관계를 보여주는 도상 기호의 특성은 TT2, TT4에서 재현되었다. TT2는 빈도표와 동일한 2열 구성으로 문자와 알파벳과의 관계를 행으로 구분하고 화살표를 사용해 치환 관계를 재현했다. TT4는 원천 텍스트의 형식과 동일하게 문자와 알파벳의 치환 관계를 행으로 구분하였지만, ‘represent’를 첫 행에 사용하고 다음 행부터 중복 기호를 사용

한 원천 텍스트와 달리, 목표 언어의 어순과 조사 사용 규칙을 활용해 중복 기호 없이 술어를 마지막에 배치하여 의미를 재현했다.

TT2	TT4
5 → a * → n	5는 a를,
+ → d ‡ → o	8은 e를,
8 → e (→ r	3은 g를,
3 → g ; → t	4는 h를,
4 → h ? → u	6은 i를,
6 → i	*은 n을,
	(는 r을,
	;은 t를 나타낸다.

4.1.7 알파벳으로 치환한 영어 암호문: 상징

알파벳으로 치환한 영어 암호문에는 구두점이 없어 숨겨진 의미는 이해하기 어렵고 파편적인 의미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이 단계의 암호문은 완전한 해석을 할 수 없다는 의미 해석의 불완전성이 중요한 특징이다. 알파벳으로 치환한 암호문이 재현된 번역은 TT2와 TT4이며 치환된 영어 문장 아래에 한국어 번역문을 괄호 안에 배치했고, 두 번역 모두 구두점 없이 하나의 문장으로 번역하여 의미 해석의 불완전성이라는 암호문의 특성을 재현했다.

TT2	A good glass in the bishop's hostel in the devil's seat forty-one degrees and thirteen minutes northeast and by north main branch seventh limb east side shoot from the left eye of the death's-head a bee-line from the tree through the shot fifty feet out. (주교의 저택 악마의 의자에서 좋은 유리 41도 13분 북쪽의 북동 지역 주된 줄기 일곱 번째 동쪽 가지 해골의 왼쪽 눈에서 총알을 쏘서 나무로부터 총알을 통과하여 끝벌선으로 50피트.)
TT4	A good glass in the bishop's hostel in the devil's seat twenty-one degrees and thirteen minutes northeast and by north main branch seventh limb east side shoot from the left eye of the death's-head a

<p>bee-line from the tree through the shot fifty feet out. (주교 관저에 있는 악마의 의자에서 좋은 안경 21도 13분 북동미 북* 주가지의 동쪽 일곱 번째 가지 해골의 왼쪽 눈에서 발사 그 나무에서 탄착점을 지나 직선거리 15미터) *북동미북: 북동쪽에서 북쪽으로 조금 기울어진 방위를 뜻한다.</p>

암호문을 구성하는 문자와 알파벳의 치환 규칙 재현 측면에서는 일부 문자가 생략되거나 규칙성이 달라졌는데, 아래 예는 TT2에서 영어 단어 ‘hostel’의 ‘hos’에 해당하는 세 문자가 생략되어 치환 법칙이 완전하게 재현 되지 못한 것을 보여준다. 번역문에서 영어 암호문을 함께 제시하는 경우 독자는 치환 규칙을 대입해 볼 수 있고, 그 규칙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암호 해독 과정의 묘미를 완전하게 경험할 수 없게 된다.

5 3‡ †+ 305))6*;48 26)4‡.) ___ :80 6*;48 +8q60))85;1‡(∴ ‡*8 +83(88)
 A good glass in the bishop's hostel in the devil's seat forty-one degrees

아래의 예는 TT4에서 암호문을 구성하는 문자와 알파벳과의 치환 규칙을 대입하여 도출한 영어 문장 암호문의 일부이며, 각 문자와 알파벳 간의 치환 규칙이 완전하게 재현되었다.

5 3‡‡(305))6*;48 26)4‡.) 4‡;806*;48 ‡8(60))85; :‡8∴ ∴* 8‡83(88)
 A good glass in the bishop's hostel in the devil's seat twenty-one degrees

위의 예에서 TT2와 TT4의 영어 암호문에는 ‘forty’와 ‘twenty’ 부분에 차이가 있는데, 암호문 조합이 다른 원작의 영문판 버전이 존재하므로 번역에 사용한 원천 텍스트의 암호문 조합에 따라 번역 결과가 달라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⁴⁾. 일반적으로 암호문을 구성할 때는 기호의 모양보다 순서와 다

4) 원천 텍스트의 암호문 비교를 위해 1899년 다나 에스테스 앤 컴퍼니(Dana Estes & Company)에서 출판한 작품을 확인한 결과 빈티지 북스의 암호문과 동일하게 ‘forty’였지만, 1902년 랜드 맥널리 & 컴퍼니(Rand, McNally & Company)에서 편집 출판한 작품에는 ‘twenty’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는 암호문의 상징 기호로서의 특성 번역을 분석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으므로 다른 버전에 대해서는 논외로 한

양성이 더 중요하므로(Whalen, 1994, p 42), 번역 과정에서 기호가 나타내는 규칙성을 유지하면서 문자 종류만 변경된다면 암호 해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상징 기호의 의미를 유지할 수 있다.

4.1.8 의미 단위를 분석한 최종 암호문: 상징

TT1	사제의 저택, 악마의 의자에 자리를 잡고, 좋은 안경으로 일곱 번째 가지를 찾아라. 해골의 왼쪽 눈알에서 실을 쏘아 탄환을 지구에 꽂아, 꿀벌의 길을 동쪽으로 15미터 걸어라. 그 곳에 황금의 무덤이 있다.
TT2	A good glass in the bishop's hostel in the devil's seat—forty-one degrees and thirteen minutes—northeast and by north—main branch seventh limb east side—shoot from the left eye of the death's head—a bee line from the tree through the shot fifty feet out. (주교의 저택 악마의 의자에서 좋은 유리—41도 13분—북쪽의 북동 지역—주된 줄기 일곱 번째 동쪽 가지—해골의 왼쪽 눈에서 총알을 쏘아—나무로부터 총알을 통과하여 꿀벌선으로 50피트.)
TT4	A good glass in the bishop's hostel in the devil's seat / twenty-one degrees and thirteen minutes / northeast and by north / main branch seventh limb east side / shoot from the left eye of the death's-head / a bee-line from the tree through the shot fifty feet out. (주교 관저에 있는 악마의 의자에서 좋은 안경 / 21도 13분 / 북동미북 / 주가지의 동쪽 일곱 번째 가지 / 해골의 왼쪽 눈에서 발사 / 그 나무에서 탄착점을 지나 직선거리 15미터)

의미 단위를 분석한 최종 암호문은 TT1, TT2, TT4에서 재현되었다. TT1에서는 분석한 의미 단위를 쉼표로 구분한 최종 암호문을 재현하였고, ‘자리를 잡고’, ‘찾아라’, ‘꽂아’, ‘걸어라’ 등 원천 텍스트 암호에는 없는 동사 어휘를 사용하여 수행해야 할 행위를 명시적으로 제시했으며, ‘그 곳에 황금의 무덤이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암호문의 숨겨진 의미인 보물의 위치

가 표면화되면서 추론을 통해 의미를 해석해야 하는 암호문의 특징이 약화되었다. TT2와 TT4에서는 영어 암호문 아래에 번역 암호문을 함께 배치했고, TT2는 이음표(—), TT4는 슬래시(/)를 사용하여 실제 장소에서 수행할 행동 순서를 분석한 암호문의 특징을 유지했다.

4.2 분석 결과에 대한 논의

각 번역서는 암호 해독 단계의 핵심 기호를 유지, 생략, 변형하는 전략으로 암호 해독 과정을 다양하게 재현한 창의적인 번역(creative translating)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창의적인 번역을 판단하는 데는 새롭고(new) 적절한(adequate) 번역인지가 주요 요소이며, 새로워야 한다는 것이 원천 텍스트와 달라야만 한다는 것은 아니다(Kussmaul, 2000, p. 124). 관점(perspective)을 바꾸거나 다른 요소에 초점(focus)을 맞추어 원천 텍스트와 목표 텍스트 간에 연관성을 유지하면서 창의적인 번역 결과물을 생성할 수 있으며, 목적(skopos)에 따라 그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Kussmaul, 2000, p. 120). 예를 들어, 원천 텍스트에서는 암호 구성 방식과 주인공의 암호 해독 과정에 초점을 맞춰 서술자, 주피터와 상반되는 주인공 르그랑의 해석 능력을 보여 준다면(Williams, 1982), 목표 텍스트에서는 모험이나 탐험 과정에 초점을 맞춰 독자의 흥미를 유도하기도 하고, 논리력과 추리력 함양에 초점을 맞추기도 하며, 문학 작품을 제대로 감상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도 하였다.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암호 해독 단계와 핵심 기호에 대한 번역 전략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기호 유형, 대상 독자, 출판 형식 관점에서 정리하였다.

4.2.1 기호 유형과 번역

기호와 대상의 유사성을 기반으로 한 도상 기호와 합의된 규칙을 기반으로 한 상징 기호는 원천 텍스트와 목표 텍스트 문화권이 공유하고 있는 맥락과 상호텍스트성의 정도에 따라 번역 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

도상 기호 중 이미지에 해당하는 황금 벌레, 해골, 새끼 염소는 두 문화권의 공유 정도가 크고 보편적인 해석이 가능하므로 추가 정보 없이 번역하는 전략이 사용되었고, 번역 과정에서 의미 손실이나 변형 없이 유지될 가

능성이 높다. 반면, 다이어그램에 해당하는 문자 빈도표와 알파벳 치환표는 유지 또는 변형 전략이 사용되었는데, 다이어그램도 보편적인 해석이 가능하지만 관계를 재현하는 방식은 언어와 문화의 차이에 따라 다양해질 가능성이 높다.

상징 기호 중 언어유희는 생략되는 경향을 보였고 유지한 경우 추가 정보를 제공하여 의미를 재현했으며, 암호문은 형식은 변형된 경우가 있으나 의미는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상징 기호는 합의된 규칙을 기반으로 독자가 의미를 해석하므로, 언어 규칙이나 관습, 문화의 차이가 클수록 이해를 돕기 위한 형식 변형 또는 정보 추가 전략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4.2.2 대상 독자와 번역

대상 독자를 기준으로 TT1은 일반인 대상, TT2, TT3, TT4는 어린이 대상 번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TT1은 어린이로 대상을 한정된 내용을 찾을 수는 없었지만 4단계에서 7단계까지의 어려운 암호 해독 과정을 생략하면서 보물을 찾는 과정과 결과에 초점을 맞춰 번역하였다. 또한, 등장인물 소개, 각주 사용, 소재목으로 이야기를 구분하는 등 일반 독자 또는 추리 소설 장르를 선호하는 독자들을 대상으로 쉽게 이해하고 몰입할 수 있는 전개 방식을 선택하여 흥미를 유발하는 데 목적을 둔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TT2는 문자 조합 암호문 구성에 일부 변화가 있고 문자 빈도표와 알파벳 치환표의 형식이 달라졌지만 8단계의 모든 기호가 재현되었으며, 암호 해독 과정을 이해하면서 논리적인 사고력과 추리력을 기른다는 목적을 위해 암호 해독 단계를 최대한 유지하는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TT3은 단계별 기호 번역에 변화가 가장 큰 번역서로 네 편의 번역서 중 대상 연령이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1단계의 황금 벌레와 2단계의 해골을 제외하고 암호 해독의 추론 과정과 관련된 기호가 모두 생략되었다. 원천 텍스트의 암호를 그대로 재현하고 해독 과정을 강조하기보다는 암호 해독을 통해 보물을 찾아 탐험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문학 번역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전략인 아동의 인지 수준을 고려하여 어려운 내용을 생략하거나 축소하는 전략(박옥수, 2015; 신지선,

2006; 이인규, 2012)을 통해 연령층에 적합한 번역 결과물을 생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TT4는 단계별 기호 번역에 변화가 가장 적은 번역서로, 문자 조합 암호문의 일부가 변형되어 치환 암호문과 분석 암호문의 내용 일부가 변경되었지만 8단계까지 모든 기호의 기능이 유지되었다. 출판사 서평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암호를 해독해 보려는 도전 의식을 고취하고 추리력, 분석력, 사고력을 기르는 흥미로운 독서 시간을 제공한다는 목적에 따른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원작은 대상 독자가 아동이 아니지만 세 번역서는 암호 해독이라는 서사 장치를 아동을 위한 교육 목적에 접목하였고, 특히 TT2, TT4에서는 암호 해독 단계와 핵심 기호를 유지하고 그 의미를 재현하려는 전략이 우세하여 아동을 위한 번역에서도 원작의 문학과 미학을 유지하는 전략의 중요성이 강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박옥수, 2015).

4.2.3 출판 형식과 번역

작가의 다른 작품과 함께 작품집에 수록되는 경우와 비교할 때 단편 단행본으로 출판된 번역서는 해당 작품에만 집중할 수 있으므로 작품의 주요 서사 장치인 암호 구성과 해독 과정을 부각하는 파라텍스트 요소를 추가하여 독자의 의미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암호 해독을 통해 보물을 찾는 추리 소설이라는 작품의 장르를 부각하여 다른 작가의 단편 단행본과 함께 추리 소설 총서 또는 논술 총서로 구성하는 특징을 보였다.

번역서별로 암호 해독과 관련된 파라텍스트 요소를 검토해 보면, TT1은 작가와 작품을 소개하는 ‘머리말’과 세 인물을 소개하는 ‘등장인물’ 항목을 본문 전에 구성하여 암호 해독과 보물 발견이라는 작품의 주요 서사 장치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여 독자가 서사를 이해하는 방향을 안내하였다. 또한, 본문 내 흑백 삽화를 사용하여 기호의 의미 이해를 도왔는데, 르그랑이 발견한 황금 벌레를 서술자에게 소개하는 장면 삽화는 1단계 기호인 황금 벌레를 가시화하였고, 주피터가 나무 위 해골이 걸린 가지에 다가가는 장면, 망원경으로 해골이 걸린 나뭇가지를 바라보는 장면의 삽화는 8단계의 분석 암호문이 재현하는 의미인 보물이 묻힌 곳을 찾기 위해 수행할 행동을 이미지

로 전환하여 독자의 해석 방향을 안내하였으며, 세 인물이 땅을 파는 장면 삽화는 보물이 묻혀 있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지표 의미를 강화하였다.

TT2는 본문 뒤에 ‘자기진단테스트’, ‘책의 줄거리’ 항목을 통해 본문을 읽으며 독자가 해석한 의미를 재확인할 수 있게 했다. 본문에서는 한쪽 면 전체를 차지하는 크기의 흑백 삽화를 통해 의미 해석의 단서를 제공하였는데, 1단계의 황금 벌레 그림과 2단계의 해골 그림은 암호의 출발점인 해적과 보물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으며, 해골이 그려진 모자를 쓴 인물의 얼굴 그림은 해골이 상징하는 해적을 연상시켜 의미 해석을 강화하였다.

TT3은 암호 해독 1단계와 2단계의 기호만 재현하여 이야기를 단순화하였고, 서사 전체를 반영한 천연색 삽화가 배치되었다. 본문에서 1단계의 황금 벌레 그림을 3회 구성하여 암호 해독의 출발점이자 보물 발견의 지표라는 해석을 강화하였다. 2단계의 해골 그림은 인물의 발화에만 재현되었다. 나무 위 가지에서 해골을 발견하는 장면의 삽화에도 나무 위에 오른 주피터의 모습만 담았는데, 어린이에게 무서운 느낌을 줄 수 있어 해골 이미지를 생략한 것으로 볼 수 있다(신지선, 2006). 본문 전에는 탐험의 정의와 역할, 암호의 정의와 용법을 설명하여 암호가 주요 서사 장치라는 단서를 제공하였고, 숲 속에서 땅을 판 자리에 서 있는 세 인물과 그 중 한 인물이 금빛으로 빛나는 물체를 손바닥에 들고 있는 삽화를 사용하여 보물 발견으로 이어지는 서사를 암시하며 독자의 해석 방향을 유도하였다.

TT4는 본문 뒤에 ‘황금 곤충 이렇게 읽어 보세요’ 항목에서 작품의 줄거리를 제공하고, 해적의 보물과 암호라는 소재로 완성된 추리 소설 기법의 모험 이야기라는 설명을 추가하여, 암호 해독 단계가 작품의 주요 서사 장치임을 강조했다. 본문에서는 1단계의 황금 벌레 그림을 이야기의 섹션을 구분하는 기호로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도상 기호와 지표 기호의 의미를 강화하였고, 8단계의 분석 암호문의 내용인 주피터가 나무 위 해골 눈을 통해 황금 벌레를 내려 보내는 장면, 주인공이 바위 위에서 망원경으로 멀리 내다보는 장면의 삽화를 사용하여 의미 해석에 긍정적인 맥락 정보를 제시하였고, 세 인물이 땅을 파는 장면 삽화를 통해 보물이 묻혀 있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지표 의미를 강화하였다. 이처럼 파라텍스트 요소는 본문의 핵심 서사 장치인 암호와 해독 과정의 의미 해석 방향을 안내하거나 강화하는 역

할을 하였다(Genette, 1997).

5. 결론

본 연구는 에드거 앨런 포의 단편 소설 「The Gold-Bug」의 번역서 4종을 대상으로, 주요 서사 장치인 암호 해독 과정에서 단서가 되는 기호에 한정하여 이야기 속 맥락에서 해당 기호의 특성과 의미를 분석하고 해당 기호의 번역 전략을 분석하였다. 주인공이 암호를 해독하는 과정을 8단계로 단계화하고, 각 단계의 핵심 기호를 추출하여 퍼스의 기호 유형론을 기반으로 도상, 지표, 상징 기호로 분류한 뒤, 각 기호가 이야기 속에서 인물의 추론을 통해 해석되어 의미가 생성되는 과정을 검토하여 그 번역 양상을 분석하였다. 각 번역서는 암호 해독 단계의 기호를 생략하거나 변형 또는 유지하는 전략을 선택하여 다양한 창의적인 해석 결과를 생성하였다. 기호 유형별 번역 전략 분석 결과, 유사성을 기반으로 의미를 해석하는 도상 기호 중 황금 벌레, 해골, 새끼 염소 이미지는 기호와 그 의미가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고, 문자 빈도표와 알파벳 치환표는 기호의 재현 방식이 변형되거나 생략되었다. 함의된 규칙을 기반으로 의미를 해석하는 상징 기호 중 언어유희는 생략되는 경향을 보였고, 여러 문자로 조합된 암호문은 생략과 변형 전략이 동일한 비율로 사용되었다.

암호 구성과 해독이라는 추론 과정이 주요 서사 장치인 미스터리 문학 작품에서 암호라는 기호학적 요소는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흥미를 유발하는 장치이며, 암호 해독과 문제 해결의 가능성, 서술의 일관성 등 해석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그러므로 번역 과정에서 해당 기호를 유지, 생략, 또는 의미나 재현 방식을 변형하는 번역 전략에 따라 암호 내용과 해독 과정이 다른 다양한 번역 결과물이 생성된다. 이러한 전략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본고에서는 기호의 유형, 대상 독자, 번역서의 역할과 기능, 출판사의 기획 의도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추리 소설 장르에서 암호라는 기호를 퍼스의 기호 유형론에 따라 구분하여 의미가 생성되는 방식과 해석을 분석한 데 의의가 있으나, 단편 단행본 번역서만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 분석 대상 4종 중 3종이 대상 독자가 아동이라는 점이 분석 결과에 제약이 될 수 있으므로 향후 저자의 작품집 단행본 번역서에 수록된 작품을 분석하여 전략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1차 자료>

- 에드거 앨런 포. (1986). 황금벌레. (편집부 역). 계림문고.
에드거 앨런 포. (1994). 황금풍뎅이. (편집위원회 옮김). 웅진출판.
에드거 앨런 포. (2008). 황금벌레. (김주현 글). 한국글렌도만.
에드거 앨런 포. (2014). 황금곤충. (황윤영 역). 보물창고.
Poe, E. A. (1975). The Gold-Bug. In The Complete tales and poems of Edgar Allan Poe (pp. 42-70). Vintage Books.
Poe, E. A. (1899). The Gold-Bug. Dana Estes & Company.
https://archive.org/details/goldbug00poe_0/page/62/mode/2up
Poe, E. A. (1902). The Gold-Bug, (T. Gildemeister, Ed.). Rand, McNally & Company.

<2차 자료>

- 김명균. (2009). 토마스 하디의 소설 『더버빌가의 테스』의 영화화와 자막연구 — 로만 폴란스키의 『테스』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0(3), 31-52.
김진아, 김지은. (2018). 문화기호학적 측면에서 한식명 중국어 번역의 문제점 고찰: 독자 수용성을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22(2), 51-75.
마승혜, 김순영. (2022). 번역서 표지에 대한 사회기호학적 분석 및 평가 — 「82년생 김지영」 번역서의 앞표지와 주제 간의 일관성을 기준으로. 번역학연구, 23(3), 183-209.
박옥수. (2015). 아동 청소년 문학번역의 기능적 분석과 번역 전략 연구. 동화와 번역, 30, 149-169.
신지선. (2006). 걸리버 여행기 번역에 나타난 교육적 목적의 변환 고찰. 동

- 화와 번역, 11, 171-195.
- 신지선. (2009). 이중 독자층이 내재한 아동문학의 번역양상 고찰 — 『버드 나무에 부는 바람』 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0(3), 141-159.
- 이상빈. (2020). 화면해설에서의 객관성과 인물의 심리·감정 표현: 배리어프리 영화 『앙리 앙리』 (Henri Henri)를 기반으로. 번역학연구, 21(1), 139-158.
- 이승재. (2015). 문화소 분석에 대한 기호학적 접근: 실험적 제안. 통번역교육연구, 13(3), 77-96.
- 이윤희. (2020). 재현 매체를 통해 본 증언과 기억의 내레이선: 영화 <생일>의 퍼스 기호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영상문화, 36, 57-84.
- 이인규 (2012). 아동문학번역에 나타난 번역의 자율성 — 크리스마스 캐럴의 경우. 번역학연구, 13(2), 185-208.
- 이창수. (2008). 국내기업의 영역된 웹사이트의 문화 사용성 문제점 연구: 기호학적 관점에서. 통역과 번역, 10(2), 105-124.
- 이향근. (2017). 한국 아동문학 번역 작품의 표지(表紙) 분석 연구. 한국초등교육, 28(4), 251-269.
- Barthes, R. (2002). 현대의 신화 (이화여자대학교 기호학연구소, 번역). 동문선. (Original work published 1957)
- Carlson, B. (2025). Puzzling, affect, and ephemera in *The Gold Bug and The Man of the Crowd*. *Nineteenth-Century Contexts*, 47(1), 69-79.
<https://doi.org/10.1080/08905495.2025.2478618>
- Chandler, D. (2017). *Semiotics: The basics* (3rd ed.). Routledge.
- Genette, G. (1997). *Paratexts: Thresholds of interpretation* (J. E. Lewin, Tra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rrowitz, N. (1983) The body of the detective model: Charles S. Peirce and Edgar Allan Poe. In U. Eco & T. A. Sebeok (Eds.), *The Sign of three: Dupin, Holmes, Peirce* (pp. 179-197). Indiana University Press.
- Jakobson, R. (1959). On linguistic aspects of translation. In R. A. Brower (Ed.), *On translation* (pp. 232-239). Harvard University Press.
- Kristeva, J. (1986). *The Kristeva reader*, (T. Moi, Ed.), Columbia University

Press.

- Kussmaul, P. (2000). Types of creative translating. In A. Chesterman, N. G. San Salvador & Y. Gambier (Eds). *Translation in context: Selected papers from the EST Congress, Granada 1998* (pp. 117-126). John Benjamins.
- Lee, H. K. (2006). Semiotic analysis of children's literature. *The Journal of Translation Studies*, 10(1), 109-131.
- Liszka, J. J. (1996). *A general introduction to the semiotic of Charles Sanders Peirce*. Indiana University Press. <https://doi.org/10.2307/j.ctt2005q7>
- Peirce, C. S. (1931-1958). *Collected papers of Charles Sanders Peirce* (Vols. 1-8), C. Hartshorne, P. Weiss & A. W. Burks (Eds.). Harvard University Press. <https://colorysemiotica.wordpress.com/wp-content/uploads/2014/08/peirce-collectedpapers.pdf>
- Saussure, F. de. (2011). *Course in general linguistics* (W. Baskin, Trans.). (Original work published 1916).
- Wang, C., Xiao, X. & Liu, B. (2018). Symbolic analysis of animal images in Edgar Allan Poe's works. *Advances in Social Sciences Research Journal*, 5(3), 533-540.
- Whalen, T. (1994). The code for gold: Edgar Allan Poe and cryptography. *Representations*, 46, 35-57. <https://doi.org/10.2307/2928778>
- Williams, M. (1982). The language of the cipher: Interpretation in The Gold-Bug. *American Literature*, 53(4), 646-660.

Analysis of Translation Strategies for Signs: Focusing on the Cryptograph in Edgar Allan Poe's *The Gold-Bug*

Kyonghee Lee (lee0246@daum.net)

Department of English Linguistics,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Dongguk University
(Seoul)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translation strategies applied to signs that serve as clues in the process of deciphering cryptograph, a major narrative device in Edgar Allan Poe's novel *The Gold-Bug*. The analysis divides the deciphering process into eight steps and classifies the key signs for each step as icons, indices, or symbols on the basis of Peirce's typology. It then examines how four Korean translations of the novel (TT1, TT2, TT3, and TT4) handle these signs. The findings indicate that the translators used differing strategies, including omission, representation, and modification. With respect to each deciphering step, the strategy of omitting some steps appears prominent in TT1 and TT3. Regarding sign types, icon signs such as the images of the gold-bug, the skull, and the kid are generally maintained, while diagrammatic elements such as the character frequency table and alphabet substitution table tend to be either omitted or altered in their representation. Among the symbol signs, the deciphering process for wordplay is omitted in all translations except TT4, and the cryptograph appears only in TT2 and TT4. These results suggest that translators approach cryptographic signs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target readers, the role and function of the target text, and the publisher's intentions.

Keywords: Peirce's sign typology; semiotics; sign; literary translation; translation of cryptograph

키워드: 퍼스의 기호 유형, 기호학, 기호, 문학 번역, 암호 번역

이경희

동국대학교 영어영문학부 영어·통번역학전공 강의초빙교수

lec0246@daum.net

논문 투고: 2025년 11월 12일

1차 심사 완료일: 2025년 11월 30일

2차 심사 완료일: 2025년 12월 8일

게재 확정일: 2025년 12월 16일